

가정을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에베소서 4:1-3 설날 가정예배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통해 가정을 이루시고, 가정과 가정이 가문을 형성하고, 가문이 모여 부족이 되며, 부족이 확장되면 국가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가정과 가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소중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1.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은 교회의 일치를 위해 구성원들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가정도 구성원들이 서로 겸손과 온유하게 대하며, 오래 참으며 서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남녀가 서로 다르고, 세대가 서로 다르기에 상호간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드러움으로 대하면 가정의 평화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실천해야 하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2. 사랑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정원이 눈 앞에 나타나기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행복한 가정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으로 가정을 가꾸어야 합니다.

3. 소중한 것을 지킵시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긴 경험이 있으신가요? 소중한 것은 지키고 보호할 때 더 소중한 가치를 부여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믿음의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노력은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명절은 가족공동체의 소중함과 사랑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고백해봅시다. “사랑합니다.” 또한 가족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예수교 창신교회
대한성결교회
담임목사 이종복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가능하면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예배를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부름 ----- **인 도 자**
모두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설날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 앙 고 백 ----- **다 같 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되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 **찬송가 301장** ----- **다 같 이**
1.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안에서 행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없는 거리애나 험한 산길 헤멜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을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대 표 기도 ----- **말 은 이**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족이 힘들 때나 기쁠 때 주님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새 해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계획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참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 경 봉 독 ----- **엡 4:1-3** ----- **다 같 이**
1.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2. 모든 겉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특 별 찬 송 ----- **말 은 이**
예배 시작 전에 정해진 한 사람이 하시면 됩니다.
(자녀 중에 한 사람이 하면 좋습니다)

말 씬 ----- **자녀는 질문하고 부모는 대답하라** ----- **말 은 이**
설교문은 뒷면에 있습니다.

축 복 기도 ----- **다 같 이**
각 가정의 부모가 자녀들을 품에 안거나 손을 잡고
자녀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한 후에
가장이나 신앙의 연장자가 참석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찬 송 ----- **찬송가 559장** ----- **다 같 이**
1.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2.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를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설움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3.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후렴)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주 기도문 ----- **다 같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 눕 ----- **다 같 이**
※ 본문의 말씀을 듣고 느낀 점을 가족끼리 함께 대화해봅시다.
아래의 질문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도 됩니다.

- 1)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요?
- 2) 소중한 것을 지키거나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3)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었을 때의 느낌을 서로 말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